

# 지독했던 장마...광주·전남 역대 가장 많은 비 뿌렸다

### 올 장마기간 31일 누적 755mm...강우일수 평년 16.9일→올해 24.2일 전국 강수량도 역대 3위...장마 종료됐지만 국지성 호우는 계속될 듯

올해 장마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26일을 기점으로 올해 장마가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31일 간 지속됐으며 전국적으로 시작과 종료가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이번 장마 기간 광주·전남에는 평균 755.5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광주·전남에 가장 많은 장맛비가 내린 1985년(751.5mm)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누적 강수량 1위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전국 관측망이 세

워진 1973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장맛비가 내린 것이다. 장마 기간 광주·전남 평년 평균 누적 강수량인 338.7mm보다도 2배를 훌쩍 넘긴 비가 쏟아졌다. 올해 장마 기간 광주에는 총 1101.9mm의 비가 내렸다. 전남에서는 구례가 1262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담양 1175mm, 함평 1057.5mm, 장성 1005mm, 나주 952.5mm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장마철 평균 누적 강수량은 648.7mm로, 2006년(704.0mm)과 2020년(701.4mm)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비가 좀처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내리면서 광주·전남의 강우 일수 또한 평년(16.9일)을 뛰어넘는 24.2일을 기록했다. 강우 일수는 장맛비가 일시적으로 멈춘 때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비가 내린 일수를 뜻하는데, 올해는 전체 장마 기간 31일 가운데 단 7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비가 내렸다. 한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강우 강도(강수량 대비 강수량)도 역대급으로 강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 광주·전남 강우 강도는 31.2mm를 기록했는데, 올해 전국 평균 강우강도 30.6mm보다 높은 수치이며 역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장맛비가 내린 2006년(26.1mm), 2020년(24.4mm)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특히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안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오르내리길 반복하면서 장맛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광주·전남에는 241.2mm의 비가 내렸는데, 연평균 강수량 1390.3mm의 17.3%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번 장마 기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됐는데, 이 고기압의 가장 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는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에 걸쳐 오르내리길 반복하면서 충청도 이남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세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0.5도 높은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옐니

노 현상으로 태평양 인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 양이 증가해 장맛비가 더욱 많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함께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상청은 국지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져 광주·전남 곳곳에 돌풍과 전동·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유해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이 변화하면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며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물놀이장에서 더위 식히는 시민들 장마가 끝나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26일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 오룡동 시민의 숲 물놀이장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장마 '끝' ... 폭염 '시작'

### 광주·담양·해남 폭염경보...습도 높아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

한달간 이어진 장마가 끝나자 광주·전남에 폭염이 시작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부터 광주지역에 발효중이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담양과 해남에도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전남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주 낮 최고기온은 33.9도(체감온도 34.8)를 기록했

다. 해남은 34.2도(체감온도 35.3도) 담양은 33.6도(체감온도 35.1)의 낮 최고기온을 보였다. 이번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속된 장맛비와 26일부터 28일까지 간헐히 내리는 소나기 등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가 33도(일부지역 35도 내외)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전지역에 습도가 높아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도 있겠다"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이런 택시기사, 저런 택시기사

#### '다리 만져달라'는 여성 승객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택시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며 성적 접촉을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수경찰은 지난 17일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5월 24일 새벽 1시 30분께 여수시 학동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B씨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한지 10여분이 지나자 B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

구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본인 허벅지로 끌어당기고는 "나는 꽃뱀이 아니다",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지속적으로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결국 A씨는 택시에서 하차했다. 이후 B씨는 해당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TV 분석을 진행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법규 위반 차량 노려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겨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역대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개인택시 운전기사 A(57)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1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접근해 일부러 속도를 줄

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험금을 타려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5일 기각당했다. 경찰은 각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조선대병원 노조 무기한 총파업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측과의 합의 결렬로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지부(노조)는 26일 오전 조선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병원 측의 일방적 교섭 합의 파기로 27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9년만의 총파업으로 지난 14일 구두

합의에 이르렀지만 21일 조선대병원장은 면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합의안을 부정했다"면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선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노조 측에서 세부항목(간호 근무표)까지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의 당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결과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오히려 노조 측에서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대인 기자 kdi@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